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여러분이 바로 부처님이자 중생이요 중생이자 부처님입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오늘 말씀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서로 토론하는 데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데서부터 있는 것이지 큰 데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조그마한 마음속에서부터 큰 우주를 덮기도 하고 들기도 하고 굴리기도 하는 것이지….

질문자1(남) 스님께서 말씀하신 한마음이, 그리 좋은 게 어째서 있을 수 있는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어째서 그런 게 있습니까?

큰스님 지금 저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런 일이 어디서 그렇게 생길까요?

"어디서 생길까요?" 하는 그 말 나오기 전에, 우리는 지금 모두가 수십억 마리가 한데 합쳐져서 인연이 돼서 몸뚱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내놓으려 해도 내놓을 수 없고 보려고 해도 볼 수 없기 때문에 무한의 진리라고 합니다. 끝 간 데가 없습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그 맛을 못 본다면 정말 억울한 것입니다.

질문자1(남) 근데 왜 맛이 그렇게 안 봐집니까? (대중 웃음)

큰스님 그래서 노력을 하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 모든 사람이 육신으로써 노력을 하려고 그럽니다. 선방에 들어가서 육신이 견딜 수 없는데도 억지로 하다 하다 나중에는 병들어서 약탕관이 떠날 사이가 없는 그런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도 어느 비구니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스님이란 큰스님을 다 찾아다니면서 화두를 받아 가지고 공부를 해도 안되고 그래서 선방으로 들어갔는데, 선방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몸이 망가져서 인제는 병이 들었습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기에 와서 스님한테 듣고 가서 그렇게 노력을 해봤다는 얘깁니다.

그저 무조건 '죽든지 살든지 먹는 거든지 일체가 다 네놈이 하는 거니까 너 알아서 해라.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니 감사하구나.' 하고 놓고서 그냥 견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하, 이렇구나!' 하면서 아주 신기하게 그냥 확 트여지는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너무나 좋아서 입이 이렇게 벌어지고 어깨가 쭉 펴졌답니다. 병들었던 그분이 그렇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여러분이 부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부처님이자 바로 중생이고 중생이자 부처님이에요. 한 생각에 껍데기가 벗겨지느냐 덮어쓰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아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 사는 고가 고가 아니라 전부 나를 가르치는 수행 과정이라고요. 참나가 현재의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스스로 이렇게…. 그것을 생각해 보면 고맙기 그지없는 겁니다. 아니, 작년 콩



그림 · 최주현

씨를 갖다 올봄에 심었더니 콩나무가 됐는데, 화해서 콩나무가 됐으면 콩씨는 없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콩나무에 콩이 붙었는데도 작년 콩씨 찾느라고 바깥에서 휘적휘적한단 말입니다. 그 콩씨가 바깥 어디에 있겠습니까?

질문자1(남) 과거에 비해 어리석어진 걸까요, 사람이?

큰스님 우리가 바깥으로만, 물질 본위로만 나가기 때문이죠. 우리가 듣고 보고 행하고 이러는 게 전부 물질 중심이고 물질적인 것에 의해서 좋고 나쁘고, 내 탓 네 탓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렇죠.

나는 사실 조금도 거짓 안 합니다. 내 양심이 부처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 양심에서, 즉 우주간 법계에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간 법계에 가설이 다 돼 있습니다. 천이통, 무전천체통 신기로 전체를 듣고, 또 천안통, 천체망원경으로 영사기가 돌아가듯 여러분이 움죽거리고 있는 모두를 보고, 또 타심통, 탐지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어 알고, 또 숙명통, 컴퓨터가 여러분이 지내 온 걸 다 알고, 또 누진통, 책정기가 이 다섯 가지를 다 알아서 책정을 하는 겁니다. 책정기가 이렇게 다섯 가지를 다 포함해서 지금 현실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믿지 않는 겁니다.

빛보다도 더 빠른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은 채로 여러분의 집에 한번 좀 갔다 와 보세요. 일 초도 안 걸립니다. 지구 밖으로 나가 보세요, 지구가 얼마만하게 보이나. 한번 나가 보세요, 어떤가. 밖으로 나가시는 데 걸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에 갔다 오시는 데 걸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고 나서 이렇게 했더랍니다. 아니, 죽었다고 하지 말고 꿈이라고 합시다. 꿈을 꾸는데 말입니다, 육체는 재워 놓고 꿈을 꾸는데 뺑 돌아서 큰불이 났더랍니다. 그래 길을 걷다가 불에 포위가 됐더랍니다. 포위가 됐으니 어떻게 나갑니까? 빠져나가려면 꼭 불에 타 죽겠더랍니다. 그래서 그 불에서 못 나가고 있는데 어떤 스님이 불 가운데서 쓱 나오시더니 "야! 내 지팡이를 잡아라. 네가 지팡이가 없다면 내 지팡이를 주지 못할 것이고, 네 지팡이가 있다면 내 지팡이를 너에게 줄 것이니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살려 주십시오!" 하고 절을 하니까 "오! 그 살려 달라는 지팡이가 있구나."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살려 달라는 지팡이를 주지." 그러고선 지팡이를 턱 내미는데 그 지팡이에 자기가 턱 서니까 불이 전부 없어지더랍니다.

또 한 군데를 가니까 물이 아주 천야만야하더랍니다. 거길 건너가야 자기 집에 갈 수 있는데 물에 뺑 둘려 또 포위가 됐더랍니다. 그래서 배를 찾으니 배가 있나요? 그래서 그 강을 못 건너가서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는데 또 그분이 나타나셨더랍니다. 그래서 꿈에서도 '야! 참 이상도 하다. 나를 스님이 되라고 이러시나? 꿈에 스님이 나서서 이렇게 살려 주시니 이 고마운 거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생각을 하니까 "음, 네 정성이 지극하니 내 지팡이를 주마." 하고선 지팡이를 탁 내놓는 그 바람에 물이 그냥 싹 없어지더랍니다. 그래, 길이 났으니까 그냥 갔죠?

그랬는데 또, 산에 온통 구렁이니 뭐, 짐승들이 잔뜩 있어서 응응거리고 발 하나 떼 놓을 자리가 없더랍니다. 그렇게 자리가 없어서 거기를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뭐, 여자 귀신 남자 귀신 애 귀신 늙은이 귀신 할 것 없이 귀신들이 그냥 몰려서 전부 자기를 좀 살려 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자기도 지금 죽을 지경이라 그렇게 할 힘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 엎드려서 빌었답니다. "스님, 스님! 좀 살려 주십시오. 아까도 살려 주셨는데 지금 또 한 번 못 살려 주시겠습니까!" 하고 빌면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